



1930년으로 떠나는 시간여행. 전북 군산

전라북도 군산은 1899년 개항한 이래 일제강점기 때의 근대문화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고장으로 한국에서 가장 많은 근대문화유산을 보유한 고장이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으로 쌀을 실어 나르던 수탈의 상징적인 도시로 아픔이 묻어나는 곳이지만, 지금은 옛 흔적을 그대로 보여주면서도 새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가 가득한 곳으로 탈바꿈했다. 또한 군산 내항을 중심으로 장미동, 월명동, 신흥동 일대의 원도심이 가깝게 이어져 있어 걸어서 둘러볼 수 있는 도보여행의 명소로 자리매김했다. 인근에는 초원사진관, 경암동 철길 등 영화촬영지도 함께 둘러볼 수 있다. 1930년 군산으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즐겨보자.

글·사진 | 문일식(여행전문칼럼니스트)



군산 근대문화유산의 랜드마크, 군산근대역사박물관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은 군산 근대문화유산을 한꺼번에 만날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으로 군산여행의 시작점이다. 박물관을 중심으로 주변의 근대문화유산과 원도심을 차례로 만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크게 1층의 해상물류역사관과 3층의 근대생활관으로 나뉘며, 기획전시실, 어린이체험관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다. 해상물류역사관은 바다와 인접한 군산의 역사를 일목요연하게 만나볼 수 있는 곳이다. 조선시대 때 조운의 중심지 역할을 했고, 1899년 부산, 원산, 목포 등에 이어 한국에서 6번째로 개항했다는 항구로서의 군산 역사와 중국 및 동북아시아의 관문으로 해상물류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한 현재의 모습까지 일목요연하게 전시되어 있다.

3층의 근대생활관은 1930년 군산의 거리를 재현해 전시공간을 둘러보거나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군산에 실제로 존재했던 11곳의 건물을 그대로 만들어 거리를 지나거나 건물로 들어갈 수 있게 만들었다. 군산 최대의 변화가였던 영동상가, 힘겹게 살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담긴 콩나물 고개위의 토막집과 내항의 막노동꾼, 현재의 증권거래소와 비슷했던 미국취인소와 군산의 대표적인 문화공간이었던 군산좌 등 80여 년 전으로 돌아가 시간여행을 즐길 수 있다.

근대생활관에서는 매주 토요일 오후(1시 30분, 2시 30분)에는 두 차례에 걸쳐 '1930년 시간여행' 토요 상설연극공연이 펼쳐진다. 박물관 3층 근대생활관의 곳곳을 돌며 1930년 당시의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다.

해설사와 함께하는 근대문화투어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부터 주변 근대문화유산을 차례로 탐방하며 해설해주는 프로그램이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시작해 군산세관, 일본18은행, 조선은행, 진포해양테마공원, 장미공연장, 장미갤러리를 차례로 탐방한다. 매주 토, 일요일 오후 2시 30분에 박물관 로비에서 출발하며, 약 1시간 반 정도 소요된다.

새롭게 탈바꿈한 근대문화유산의 즐길거리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주변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으로 쌀을 실어가던 군산 내항이 인접해 있어 근대문화유적이 곳곳에 남아 있다. 박물관 인근에 있는 군산세관을 비롯해 일본제18은행 군





산지점, 조선은행 군산지점, 일본무역상사였던 미즈상사, 조선미국창고주식회사의 쌀 보관창고였던 장미공연장 등이 있다. 지금은 근대 건축물의 가치를 더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구 일본 제18은행 군산지점과 구 조선은행 군산지점은 각각 근대미술관과 근대건축관으로 개관했고, 쌀 보관창고는 공연장, 일본무역상사였던 미즈상사는 커피를 마시며 쉴 수 있는 휴식공간, 용도를 알 수 없었던 또 하나의 근대건축물은 천연염색, 생활소품을 만드는 체험공간에 미술작품을 전시해 놓은 갤러리로 활용되고 있다. 근대문화유산과 역사는 딱딱함 보다 보고, 체험하고, 쉬고, 맛보는 과거 속으로 즐거운 여행이 된다.

군산근대역사박물관을 중심으로 주변 근대건축물까지 모두 둘러본다면 군산근대역사벨트 스탬프투어도 이용해보자. 스탬프투어는 박물관을 시작해 군산세관, 근대미술관, 근대건축관, 진포해양공원 등 총 8곳에서 모두 스탬프를 찍어 진포해양공원 안내데스크로 가져가면 군산 흰찰쌀보리를 소정의 기념품으로 받을 수 있다. 스탬프투어를 할 때 유료로 운영되는 관광지에 대해 통합티켓을 구매하면 개별로 구매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하니 참고하자.

과거 택시와 같은 교통수단인 인력거를 타고 원도심을 둘러보는 시간여행 인력거도 이용해 볼 만하다. 인력거를 타고 편하게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원과 신흥동, 월명동 일대의 원도심 거리를 여행할 수 있다. 코스는 탁류체험코스(60분)와 아리랑체험코스(90분), 자유체험코스가 있으며 인터넷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www.timetour169.com, 070-8281-1699).

영화촬영지의 명소, 히로쓰가옥과 초원사진관

군산은 영화촬영지로 유명한 고장이다. 과거를 상징하는 건축물과 현대식 건축물이 공존하고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히로쓰가옥과 초원사진관은 거리도 가까울 뿐 아니라 군산 영화촬영지를 대표하는 명소다.

히로쓰가옥은 영화 '장군의 아들', '바람의 파이터', '타짜' 등 영화촬영지로 유명하다. 일제강점기 때 군산지역에서 부를 축적한 일본인 히로쓰가 건축한 2층의 전형적인 일본 목조가옥이다. 6개의 방과 부엌, 식당, 화장실 등이 복도를 따라 이어져 있다. 특히 1층에는 한국의 난방방식인 온돌을 설치했고, 일본 고유의 다다미방도 있어 한국과 일본의 난방방식을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방 한 칸 바닥에 남아있는 일본식 난로도 눈여겨 볼만하다. 다다미방과 함께 바닥을 약간 높여 만든 공간에 족자도 걸고, 장식품도 놓은 도코노마, 불박이장처럼 수납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한 오시이레 등 일본 가옥의 특별한 공간도 남아 있다. 1, 2층에는 긴 복도를 따라 유리로 커다란 창이



찾아가는 길

서해안고속도로 군산 IC에서 나와 새만금방
조제방면 21번 국도를 이용, 경암사거리에서
우회전해 해망로를 따라가면 군산근대역사
박물관(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40)에 도
착한다. 근대미술관(전북 군산시 장미동, 근
대건축관(전라북도 군산시 해망로 214) 등
은 박물관에서 지척이고, 히로쓰가옥(전라
북도 군산시 신흥동), 초원사진관(전라북도
군산시 신창동)은 박물관 건너편에 있다. 거
리가 가까워 걸어서 도보여행을 즐기는 것이
좋다.

이어져 있어 정원이 한 눈에 보인다. 정원은 자연을 끌어들이는 한국식 정원과는 달리 키
작은 관목과 정원수, 기암괴석과 석탑, 석등 등 인위적이면서도 압축적으로 조경한 일본의
특유의 정원이다.

초원사진관은 정원(한석규), 다림(심은하) 주연의 '8월의 크리스마스'가 촬영된 곳이다. 8
월의 크리스마스는 두 사람의 애틋하면서도 안타까운 사랑을 그린 멜로영화로 초원사진
관은 두 주인공의 사랑을 연결시켜주는 상징적인 공간이다. 초원사진관 내부는 영화 속 사
진과 함께 영화의 스토리 보드가 한쪽 벽면을 채우고 있고, 영화에 사용되었던 카메라와
의자 등 당시 촬영소품도 그대로 남아 있다. 외부에 전시되어 있는 정원이 타고 다녔던 스
쿠터와 다림이 주차 단속할 때 타고 다니던 작은 승용차도 추억을 되새기게 한다.

우리나라 최고의 빵집, 이성당과 군산의 맛

군산에는 대전 성심당과 함께 우리나라 최고의 빵집인 이성당이 있다. 이성당은 단팥빵과
야채빵이 유명한데, 빵을 사기 위해서는 100m이상의 긴 줄을 서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다. 단팥빵은 택배로 받는데도 한 달 이상 시간이 걸리고, 야채빵은 올해 물량이 완판됐을
정도로 인기가 높다.

신흥동, 월명동 일대에는 쇠고기무국을 내는 한일옥(063-446-5502)과 아육국을 내는
일출옥(063-443-5524)이 괜찮다. 한일옥의 쇠고기무국은 깍두기처럼 썰은 무와 한우를
넣어 시원한 맛이 좋다. 일출옥은 특이하게 아육국을 내는 집으로 개운한 맛이 일품이다.
왕산짬뽕(063-467-1318)은 낙지, 홍합, 새우 등 전형적인 해물이 들어가지만 주인장이
해물 손질을 제대로 해 비린 맛이 전혀 없고, 깔끔한 매운맛이 일품이다. 📍

